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9월 1주차

- **금리:** 韓 백투백 인상 후 다음 인상 시기 조율, 수급 이슈 본격화 **환율:** 단기 급락에도 추가 환전 여력, 연내 1,300원 중반 하락 시도
- **국내 증시:** 반도체 주도력 회복 & 비반도체 순환매, 정상화 국면 **글로벌 증시:** 9월, 계절적 약세 패턴 이겨내고 상승 방향 무게
- **원자재:** 이란-오만 항로 합의 기대, IRGC 고려 시 정상화는 고민 **부동산:** 주택은 초고가와 중저가 차별화,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Fixed Income

잭슨홀 “더 강화된 인상 기대,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 강조한 워시 의장, FOMC에 이어 다시금 ‘물가 안정’
- 매파적 해석이 불가피한 美 통화정책 기조, 시장은 빠르게 인상 반영 중
- 그러나 인상 확률이 높아진 것과 당장 인상은 ‘별개’ . 기존 연내 동결 뷰 유지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불신의 검증] 선행 PER 이 지켜줄 하단. 불신이 완화/해소되면 상단은 열릴 것

- KOSPI 선행 PER 5.63배에 불과, 밸류에이션 저평가의 핵심은 27년에 대한 불신
- 9월 FOMC 금리동결 예상, 26, 27년 점도표 변화에 주목
- 9월 KOSPI 하방은 밸류에이션이 막고 상방은 이벤트가 열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엔비디아 훈풍 비껴간 국내 반도체, 잭슨홀 앞두고 숨 고르기

- 엔비디아 훈풍에도 관세 불확실성 부각,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 대외 변수에 무거워진 투자심리, 잭슨홀로 향하는 시선
- 반도체 숨 고르기, 소비재 중심 순환매 확산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Quant

금리상승을 감안해도 싸다

- 금리 충격에 대한 PER 밸류에이션 적정치 및 밴드 추정
-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할인 국면
- 추정치 밴드 하단에 위치해 할인을 추가 압력은 제한적, 이익 성장주에 주목

권순호, soonho.kwon@daishin.com

[Issue Comment] 삼성바이오로직스: 3조원 유상증자,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

- 3조원 유상증자는 향후 2~3년 투자 집중과 15.4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 결정으로 판단
- 단기 희석 부담은 불가피하나, 향후 PolyPeptide의 수익성 · FCF 개선과 신규 CAPA 가동률 상승 여부가 중요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2026년 9월 1주차

[금리] 국고 3년 3.60~4.05%

韓 백투백 인상 후 다음 인상 시기 조율. 美 기준금리 논란 + 본격화되는 수급 이슈
한국은 8월 백투백 인상을 통해 물가뿐만 아니라 높은 성장도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 다만 향후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까지 간극이 존재해 제한적 금리 하락 시도 가능.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채 수급 부담이 금리 동향에 반영. 상대적으로 수급에 더 민감한 장기채 금리 변동성 위험 상존

[환율] 달러-원 환율 1,350~1,460원

단기 급락에도 기업들의 추가 환전 여력 있어, 연내 1,300원 중반까지 하락 시도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세 심화되면서 달러-원은 2개월 만에 200원 가까이 급락. 그러나 단기 급락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주 환원 등에 따른 추가 환전 여력 존재. 반면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및 내국인 해외투자 등 자본 유출 압력은 상당 부분 진정. 달러 공급 우위 국면 지속되면서 1,300원 중반까지 추가 하락 시도 예상

[국내 증시] KOSPI 5,000~9,300p

반도체 주도력 회복 & 비반도체 순환매.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반도체 수출 모멘텀 확인, 밸류에이션/가격 매력을 바탕으로 KOSPI 시장 주도력 회복. 비반도체 또한 수출, 실적 모멘텀과 수급 개선, 채권금리 안정시 순환매 강화. KOSPI 12개월 선행 PER 6배 이하,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중. KOSPI 6,800 ~ 7,000선 안착시 1차 반등 목표 선행 PER 7배(8,500선)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

[글로벌 증시] S&P500 7,000~8,400p

9월 글로벌 증시, 계절적 약세 패턴 이기고 상승 무게. 변동성 확대 시, 비중확대
9월 미국 증시, 최근 5년 동안 계절적 약세. 9.30일 정부 회계연도 종료 앞두고 국채 발행, 금리 상승, 위험선호심리 약화 영향. 대형 기관, 분기 말 대규모 리밸런싱 영향 하지만 올해 9월은 2/4분기 실적 모멘텀, 성장 둔화 및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 바탕 연준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 커지며 상승 방향 예상. 변동성 확대 시 비중 확대 탐색 기회 활용

[원자재] WTI 70~95\$/bbl.

이란-오만 간 임시 항로 합의 기대↑ 다만, IRGC 방해 고려하면 완전 정상화는 고민
이란-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임시 항로 합의 기대감↑ 단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를 추진기로 결정.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유가의 하방 리스크로 연결. 다만, 여전히 경계 필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배상금 지급, 종전 선언, 역내 미군 철수 등) 수용만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 경고

[부동산] 주택: 강보합, 상업: 약보합

주택 세제개편으로 초고가와 중저가 시장 차별화,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주택 : 세제개편 영향으로 초고가 시장 조정, 전세기울 높은 중저가 지역 및 구매력 급증한 수도권 동남권 지역 가격 상승 지속 예상. 임대 시장은 전반적 강세 전망
상업 : 지속적인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보수적인 관점 필요, 물류 섹터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임대 시장 회복 나타나 조정 시 선별/분산 투자 의견 유지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잭슨홀 “더 강화된 인상 기대,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 강조한 워시 의장. FOMC에 이어 다시금 ‘물가 안정’
- 매파적 해석이 불가피한 美 통화정책 기조. 시장은 빠르게 인상 반영 중
- 그러나 인상 확률이 높아진 것과 당장 인상은 ‘별개’. 기존 연내 동결 뷰 유지

“물가 여건이 우려되고, 필요 시 대응”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의 물가 여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필요시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를 9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로 보기에 는 미흡한 대목들도 많았다.

이에 당사는 종전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9월 인상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기존 뷰에도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

잭슨홀: 2% 웃도는 물가에 대해 연준은 강력하게 초점

28일(현지시각)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워시 의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올 여름 PCE 물가지수와 CPI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시 의장은 연설문에서 “(연준의) 의무인 물가 안정성 면에서 관련된 여러 수치들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보다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준은 물가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스왑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보상 지표 역시 강력하고 유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7월 FOMC 직후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 여건에 대해서는 “제약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높아진 시장 금리로 인해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거듭되는 물가 강조와 빠르게 인상을 프라이싱하는 시장

잭슨홀 연설에서 워시 의장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자신들의 물가 안정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현재 연준의 핵심적인 관심은 물가 안정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즉 7월 FOMC에서 보여준 ‘물가 목표 2% 달성’과 같은 헤드라인의 연장선인 동시에 연준의 매파적인 시각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 이벤트의 성격이 컸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7월 FOMC 회의와 잭슨홀 심포지엄을 차례로 거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CME FedWatcher에 따르면 오는 9월을 포함해 향후 FOMC 일정들마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도 워시 의장의 연설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선행 PER이 지켜줄 하단.

불신이 완화/해소되면 상단은 열릴 것

- KOSPI 선행 PER 5.63배에 불과. 밸류에이션 저평가의 핵심은 27년에 대한 불신
- 9월 FOMC 금리동결 예상. 26, 27년 점도표 변화에 주목
- 9월 KOSPI 하방은 밸류에이션이 막고 상방은 이벤트가 열 전망

KOSPI 선행 PER 5.63배에 불과. 밸류에이션 저평가의 핵심은 27년에 대한 불신

8월 KOSPI는 7월 폭락의 잔해를 수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8월 핵심 키워드는 ① 미국 장기 국채금리, ② 메모리 반도체 업황 신호, ③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발표. 반도체 주도주가 지수 반등을 주도했지만, 장기 국채금리가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 특히, 잭스홀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조 연설을 통해 9월 인상 시나리오를 되살림에 따라 9월 증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

KOSPI 7,000선 회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KOSPI 선행 PER은 5.63배에 불과. 여전히 PER 6배 이하에 머물러 역사적 저점권에서 등락 중. 대만 가권의 3분의 1, 미국 S&P500(20배)의 3분의 1 수준. 3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이 거의 확실시. 국내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삼성전자 90~110조원) 예정. 상법·세제·자본시장 제도가 모두 주주환원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렬. 그럼에도 불구하고 **KOSPI 밸류에이션 저평가의 핵심은 27년에 대한 불신**

9월 FOMC 금리동결 예상. 26, 27년 점도표 변화에 주목

9월 이벤트/이슈들이 2027년 불신을 강화하는가, 완화하는가 여부가 핵심. 완화 쪽으로 기울면 선행 PER은 7배, 8배 수준으로 리레이팅되는 큰 폭의 상방이 열려 있고, 강화되면 이미 낮은 밸류에이션이 추가 하락을 제약할 전망. **하방은 밸류에이션이 막고, 상방은 이벤트가 열 것.** 9월은 그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달

9월 최대 변곡점은 9월 FOMC. 잭스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연설 이후 **9월 금리인상 확률 60%대로 레벨업.** 하지만, **대신증권에서는 9월 금리동결 예상**

1)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언급한 금리인상을 위한 기준은 명확. 하지만, 금리인상 시그널은 아님. 2)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8월 CPI와 Core CPI는 둔화 가능성 높음. 특히, **Core CPI는 2.4% 수준으로 연중 최저치 경신 예상.** 3) **금리인상 컨센서스가 0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 안정 = 증시 변동탄력 강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잭스홀 미팅 이후 경계 변수로 바라보는 9월 FOMC는 오히려 상승 탄력 강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다만, 26년에 이어 27년 점도표까지 인상 경로를 공식화될 경우 매파적 충격이 클 수 있을 것. **26년, 27년 점도표 변화에 주목**

9월 KOSPI 하방은 밸류에이션이 막고 상방은 이벤트가 열 전망

한편, 9월 1일에는 한국 수출입 동향, 30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로 HBM·범용 DRAM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2028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후 실질적인 반도체 가격 상승 여부, 메모리 이익 정점 통과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 20일까지 수출 호조로 강한 한국 및 반도체 수출 모멘텀이 예상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여는 마이크론 실적 및 실적 가이드스 결과가 중요

AI, 반도체 업황과 통화정책 컨센서스 모두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은 오히려 기회. AI, 반도체 업황/실적 불안이 선반영되고, 금리, 물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 불가피. **변동성 확대시 비중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

펀더멘털과 주가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온 만큼 펀더멘털 악화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지수 반등, 빠른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예상.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더라도 불확실성 완화, 불안심리 진정에 근거한 수급 개선만으로도 과도한 하락만큼 강한 되돌림 가능. 특히, **9월 KOSPI는 하방은 밸류에이션이 막고, 상방은 이벤트가 열 전망. 이벤트가 심리 개선, 수급 호조로 이어진다면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선행 PER 7배 회복에 나서며 KOSPI 8,500선 돌파/안착 시도 가능할 것**

엔비디아 훈풍 비껴간 국내 반도체, 잭스홀 앞두고 숨 고르기

- 엔비디아 훈풍에도 관세 불확실성 부각,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 대외 변수에 무거워진 투자심리, 잭스홀로 향하는 시선
- 반도체 숨 고르기, 소비재 중심 순환매 확산

엔비디아 훈풍에도 관세 불확실성 부각,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전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테크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으나,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 전개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가 위축. 현재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신규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이나,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국내 반도체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을 위한 기타법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투자심리 후퇴에 따라 매수 효과가 제한

반도체: 삼성전자(-3.4%), SK하이닉스(-4.5%), SK스퀘어(-3.8%)

대외 변수에 무거워진 투자심리, 잭스홀로 향하는 시선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도 여전히 난항.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이란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대화보다는 이란의 경제적 고립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

무역 정책에서도 강경 기조 유지. 최근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전력산업 장비 수입 금지와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검토가 잇따르면서 대외 정책에 대한 경계심 확대

한편 잭스홀 미팅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의장의 연설을 앞둔 점도 주요 변수. 최근 연준의 대외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설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유보할 가능성 높음. 다만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제한

반도체 숨 고르기, 소비재 중심 순환매 확산

반도체 약세 속 업종별 순환매 확산, 소비재 중심으로 상승폭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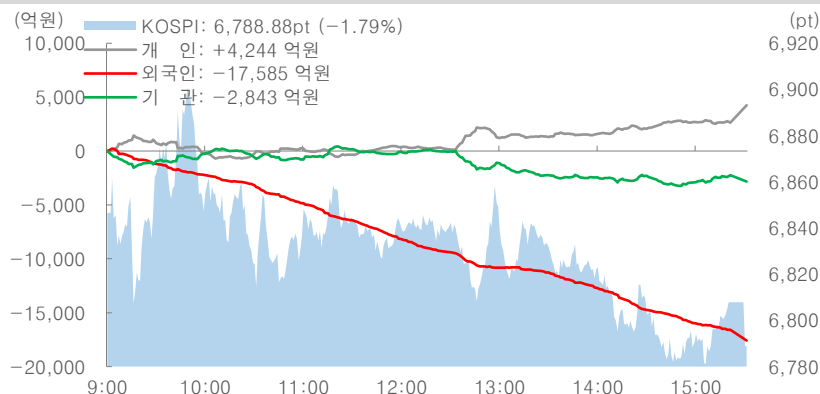
화장품: 에이피알(+6.2%), 한국콜마(+10.9%), 코스맥스(+7.1%)

음식료: 삼양식품(+4.5%), 농심(+5.5%), 롯데웰푸드(+7.6%), 오뚜기(+4.0%)

정유: S-Oil(+9.1%), GS(+4.9%), SK이노베이션(+4.4%)

보험: 한화생명(+8.6%), 현대해상(+7.1%), DB손해보험(+1.9%)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금리상승을 감안해도 싸다

- 금리 충격에 대한 PER 밸류에이션 적정치 및 밴드 추정
-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할인 국면
- 추정치 밴드 하단에 위치해 할인을 추가 압력은 제한적, 이익 성장주에 주목

금리 변동에 따른 적정 PER과 밴드

최근 국내외 장기금리 상승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와 증시 밸류에이션의 절대 레벨 간 관계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과 QT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는 금리의 추세 이탈과 PER의 추세 이탈이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이후 금리와 밸류에이션의 관계를 바탕으로 적정 PER 밴드를 추정한 결과, 현재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금리 수준을 감안한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약 1.5 표준편차 수준의 하단에 근접해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을 부담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증시 역시 6월 이후 적정 PER 밴드 하단을 이탈할 정도로 디레이팅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8월에는 이익 턴어라운드 및 추정치 상향 종목의 상대적 강세가 확인된 만큼 월 단위 시계에서 9월에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압축보다 정상화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9월 멀티팩터 포트폴리오

2026년 7월까지의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저밸류·저변동성 등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은 팩터의 우위가 뚜렷했습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증시가 금리를 감안한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하고, 국내 신용잔고도 디레버리징 이후 저점을 형성하면서 기존 방어적 스타일의 우위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8월에는 팩터 쏠림이 완화되는 가운데 이익 턴어라운드와 추정치 상향 종목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신용잔고 저점 이후에도 약 1개월부터 이익 개선 팩터의 우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된 만큼, 9월에는 낮은 듀레이션보다 이익 개선과 추정치 상향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이익 상향 종목 중 최근 60일 평균 변동성이 KOSPI200 상위 10%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했습니다. 이익 개선 신호를 확보하되 과도한 가격 변동성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9월 멀티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조원 유상증자,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2026.08.31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000,000 현재주가(08.28) 1,486,000

- 3조원 유상증자는 향후 2~3년 투자 집중과 15.4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 결정으로 판단
- 단기 희석 부담은 불가피하나, 향후 PolyPeptide의 수익성 FCF 개선과 신규 CAPA 가동률 상승 여부가 중요

3조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8/2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3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함. 신주 발행 규모는 227만주로 기존 발행주식 수의 4.9%이며, 예정 발행가는 132.2만원(할인율 15%)임. 조달자금 중 약 2.7조원은 PolyPeptide Group 인수, 약 0.3조원은 제2바이오캠퍼스 시설투자에 사용할 예정임.
- 지난 7월 PolyPeptide Group 인수 발표 당시 보유현금 및 차입을 주요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큰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은 단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실제 공시 당일 주가는 6.78% 하락함.

예상보다 큰 증자 규모, 중장기 투자계획까지 고려

- 동사는 향후 2~3년 내 집중될 투자재원 확보를 이번 유상증자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함. PolyPeptide 인수를 포함해 2034년까지 계획된 주요 투자 규모는 총 15.4조원임.
- 1H26 말 기준 부채비율은 51.3%, 보유현금은 약 2.2조원으로 추가 차입 여력은 존재함. 다만 PolyPeptide 인수를 기존 현금과 차입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인수 이후 현금은 약 0.5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번 증자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자금조달이라기보다,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판단함.
- 이번 조달금액 중 2.7조원은 PolyPeptide 인수에 사용될 예정임.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 증설 대비 빠른 펩타이드 시장 진입과 기존 항체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 양사 고객 기반을 활용한 cross-selling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나머지 약 0.3조원은 총 투자비 약 1.9조원의 6공장 건설에 투입될 예정임. 6공장은 180kL 규모로 2029년 완공 예정이며, 이외에도 제3바이오캠퍼스, 미국 생산시설 및 ADC·DP 설비 등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단기 주주 부담은 불가피, 향후 투자성과가 관건

- 기존 발행주식 수의 4.9%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에 따른 주당가치 희석 및 단기 수급 부담은 불가피함. 현재 추가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대규모 투자 집행을 감안하면 영업현금흐름 외 차입을 포함한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은 열려 있음. 향후에는 PolyPeptide의 수익성 및 FCF 개선과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 6공장을 포함한 신규 CAPA의 선수주 및 가동률 상승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